

90.7.5

'가정 간호사제' 싸고 이견 팽팽

보사부 도입 방침에 의학협회 반발

장관에 항의 의견서

가정간호사제도 도입을 놓고 대한의학협회와 대한간호협회, 보사부의 의견이 계속 팽팽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

대한의학협회는 현재 간호협회와 보사부가 적극 추진중인 가정간호사제도는 △무면허의료행위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△병원입원수요가 억제돼 병원재정이 위협받게 될 소지가 높고 △의료분

쟁시 책임한계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어 가정간호사제도의 신중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.

대한의학협회는 가정간호사제도 도입과정에서 보사부가 △입법예고도 없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중 가정간호사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종합검토한 뒤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가정간호사 이수과정을 개설한 점 등을 항의하는 긴급의견서를 지난달말 보사부 장관 앞으로

제출했다.

그러나 대한간호협회와 보사부 쪽은 △정신질환자, 만성질환자,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원치료보다 가정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△환자에게는 입원비 부담이 없어지고, 병원쪽도 병상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정간호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환자나 가족들도 번거로운 병원출입보다는 가정에서 간호사의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간호사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의견이 높다.

보사부는 지난 1월 가정간호사제도 도입방침을 정했으며,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가정간호사 이수과정이 개강되었다.